

습식수채화 기법을 활용한 목회자 부부 집단상담 사례 연구*

허국화**, 조은숙***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기법을 목회자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활용한 사례연구로서 본 사례를 통해 습식수채화 기법의 부부 집단상담 적용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습식수채화 기법을 활용한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년기 목회자 부부 7쌍을 대상으로 3개의 집단으로 나눠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변화과정과 참여자들이 인식한 효과를 심층면접을 통해 탐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부부 각자의 내면탐색과 상호이해, 상호교류와 친밀감 증진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한 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고 내담자들의 사후 조사와 면접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7쌍 부부의 효과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습식수채화가 편안하지만 심도 있는 내면작업과 배우자 이해, 상호교류 등을 유발하였고, 부부 친밀감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습식수채화 작업을 둘러싼 부부간의 상징적인 상호작용 행위들이 부부의 긍정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습식수채화를 부부상담에 활용할 때의 장점과 더불어 구체적 관계기술 지도 등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습식수채화, 목회자, 부부 집단상담, 사례

* 본 논문은 2021년도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hk982022@naver.com), 상명대학교 석사

*** 교신저자(grace123@smu.ac.kr),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의 애착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계 중 하나가 부부관계이다. 오늘날 부부관계는 사회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영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이론적 배경 하에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미술매체 등을 활용한 부부프로그램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감정의 표현이 편하지 않은 내담자들에게는 매체의 은유적 속성을 통해 마음의 이해와 소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김나영, 2015; 윤지희, 2014; 이경숙, 2011; 이효경, 2009; 홍지현, 2016)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활용된 미술매체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활용하는 경우(김나영, 2015; 백경미, 최외선, 2011; 이경숙, 2011; 이효경, 2009)와 콜라주방식에 주력하는 경우(윤지희, 2014; 홍지현, 2016)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활용되는 미술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매체로 인한 영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미술치료적 기법을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습식수채화를 새로운 치료 매체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습식수채화란 젖은 종이 위에 밑그림 없이 채색하는 수채화 기법으로서, 형태를 그려내는 것보다 색의 번짐과 붓질을 통해 그리는 사람이 색의 성질과 느낌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데 초점

을 둔다. 습식수채화는 독일의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김애진, 2015)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술교육의 대안적 형태로 연구되어져 왔다(김삼숙, 2006; 김윤희, 2021; 손지현, 윤지영, 2014).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습식 수채화 미술작업을 통한 인성교육을 시도한 창시자의 뜻을 따라 이 방법을 인성교육이나 심리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들(김애진, 2015; 김지원, 2019; 윤지영, 손지현, 2015; 조현, 2012)이 나타나고 있다.

습식수채화는 미술활동에 대한 성취불안을 낮추면서도 표현이 용이하고 순간적이고 직감적인 감정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준다(윤보라, 2007)는 점에서 말로 묘사해내기 힘든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드러내는데 용이하다. 습식수채화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구성 방식이 아닌 ‘우연’적인 효과를 통하여 표현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그 효과에서 연상되는 활동을 통해 표현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미술매체에 비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에 적절한 매체(이진경, 2015)이다. 그러나 습식수채화는 아직까지 치료적 활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미술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지영, 손지현, 2015)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 외 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유아·아동 개인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박지윤, 2020; 윤보라, 2007; 조현, 2012)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습식수채화 기법은 내면의 억압으로 자기 인식과 표현이 어려운 성인들(김인선, 2014)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습식수채화를 부부상담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으로 목회자 부부를 특정한 이유는 성직자라는 이들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지만, 부부관계의 부정적 감정이나 사고 등을 억압할 가능성이 많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이 쉽지 않다(고병인, 2004). 이처럼 목회자 부부는 각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물리적인 시간이나 정서적인 유대 공유에 집중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억압된 자신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용해 볼 수 있도록 접근하기 편하고 자기 노출이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인 습식수채화의 색의 번짐과 흘러내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작품의 의외성이 ‘정답’을 고수하는 경직성이 있을 수 있는 목회자 부부에게, 자신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습식수채화가 가져올 효용성이 보다 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발도르프 습식수채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구성을 소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적용한 한 집단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도르프 습식수채화와 그 치료적 활용

1)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습식수채화는 젖은 종이에 납작붓을 사용하여 물감의 번짐을 활용하여 채색하는 독특한 방식의

수채화로서 독일 ‘자유 발도르프학교’(Freie Waldorf Schule)’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미술교육 중 하나로 활용되던 미술작업방식이다. 이 습식수채화의 철학적 기반은 Rudolf Steiner(1861~1925)의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에 있는데 그는 인간의 정신이 예술적 경험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라 보았다(김애진, 2015). 이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1919년 독일에 세워진 사립학교인 발도르프 학교에서 습식수채화를 활용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습식수채화 교육에서는 슈타이너의 색채론에 기반하여 색을 체험하는 것을 중시한다. 슈타이너는 색채마다 본질적인 성질이 있다고 가정한다(표1 참고). 그는 녹색, 살색, 흰색, 검정색을 ‘색채의 상(像, Image)’이라고 하여 현상계 속의 본질적인 요소가 색채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상의 색 중 상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색이 ‘녹색’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우리가 흔히 3원색으로 알고 있는 노랑, 파랑, 빨강은 ‘광휘(光輝, Light)의 색’이라고 설명하며 이 색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내면서 자체적으로 빛나는 색이라고 보았다(김애진, 2015; Steiner, 1921/2000). 또한 그는 ‘파레트에 섞어서 칠하는 색이 아닌 액상의 색으로 색의 본질에 더 근접할 수 있고 색 자체의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Steiner, 1921/2000) 고 했는데 그가 고안한 습식수채화의 방법론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색의 효과를 잘 체험하기 위해 습식수채화 작업에서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두꺼운 종이(머메이드지)를 통상 사용한다. 슈타이너는 색 자체에 대한 사심 없는

음미와 경험은 한 인간의 내면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킨다고 보았다(김애진, 2015). 이런 배경에서 습식수채화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활용되었다.

슈타이너는 습식수채화가 혼(混, 뒤섞임)의 요소를 표현하기에 좋은 매체라고 보았다. 이 말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원색을 경험하는 습식 수채화 상태에서 다른 색이 섞여들면서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영규, 허경태, 2004). 습식수채화는 젖은 화지 위에 물감을 칠하거나 번지게 하면서 나타나는 우연적 요소들이 심리내면의 역동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다. 우연적 효과는 그것을 관찰하면서 연상을 통하여 내면의 표현을 펼쳐 내기에 좋는데, 심규선(2016)은 불기, 번지기, 실그림, 뿌리기,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폴라주, 핑거 페인팅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우연적 표현활동은 잠재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이며(지완중, 이은하, 2019)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구성 방식이 아닌 우연적인 효과를 통하여 표현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그 효과에서 연상되는 활동을 통해 표현 동기를 이끌어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다(이진경, 2015). 이런 점에서 습식수채화의

작업방식은 인간 심리 내면의 억압된 감정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습식수채화를 처음 경험할 때는 <표 1> 과 같이 광휘의 색인 빨강, 노랑, 파란색 3원색을 가지고 색 각각의 고유성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색들의 대칭성과 유사성, 혼색의 창조 등으로 발전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주변 환경, 동물, 식물, 광물 등을 색채로 체험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손지현, 윤지영, 2014).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 습식수채화를 유아 대상의 미술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때는 이상의 색 체험의 단계를 유사하게 적용하여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김소라, 박연선, 2007; 김애진, 2015; 손지현, 윤지영, 2014; 조현, 2012).

습식수채화에서는 색에 대한 체험을 ‘감각을 통해 색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색 체험 방식을 이야기 한다. “추상적으로 오성을 작용시키지 말고 감각을 사용하여 노란색을 탐구해보자. ‘눈앞의 노란색을 나의 내면에 작용시키면 그것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보라. 노란색은 나를 쾌활하게 한다. 쾌활하다는 것은 혼을 생명력으로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 ‘노랑은 영의 빛

표 1. 슈타이너의 색채의 상과 색채의 광휘

색채의 상 (본질적 요소가 색으로 띠어져 나옴)			색채의 광휘 (자체적으로 빛나는 색들)	
색채	잘 드러나는 예	설명	색채	특성
녹색	식물	죽어가는 생명의 영상	노랑	유동적인 성질, 방사하는 성질
살색	사람피부	혼(魂)의 살아있는 영상	파랑	응축되는 성질
흰색	태양빛	영(靈)의 혼(魂)적인 영상	빨강	노랑, 파랑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검정색	숲	죽음의 영(靈)적인 영상		

김소라, 박연선, 2007; Steiner, 1921/2000를 참고하여 요약함)

남이다’, ‘파랑은 혼의 빛남이다’, ‘빨강은 생명의 빛남이다’, ‘녹색은 생명의 영상이다’(Steiner, 1921/2000).

습식수채화에서는 색채 경험에 앞서 이야기를 들려주어 색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전통이 있다. 그 이야기는 각 색의 본질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의인화하여 만든 이야기로서(김용근, 2014) 오늘날도 습식수채화 미술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포맷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김소라, 박연선, 2007; 김애진, 2015; 손지현, 윤지영, 2014; 조현, 2012). 이 때 사용되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색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며 꿈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야기는 색채 체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므로 정형화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을 후 색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잔뜩 상승한 상태에서 잘 그려야 하는 부담감이 없이 색을 체험하게 되는데, 색을 알아가면서 친밀해져 가면 색을 점차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성숙, 2004).

2) 습식수채화의 치료적 활용

습식수채화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미술교육 분야에서 나타났다. 즉, 습식수채화를 유아동 미술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보고 미술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그것이다(김삼숙, 2006; 김소라, 박연선, 2007; 김윤희, 2021; 손지현, 윤지영, 2014). 그러나 습식수채화는 시초부터 미술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인성함양을 하고자 하는 미술교육 정신으로 개발된 것(김애진, 2015)이므로 이러한 인성 교육적 특성을 살려 습식수채화를 유치동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김애진, 2015;

김지원, 2019)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윤지영, 손지현, 2015)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한편, 습식수채화를 활용하여 유아동의 심리적 성장을 시도한 연구들도 나타나, 습식수채화가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능력 향상(윤보라, 2007), 성취정서 함양(박지윤, 2020), 그리고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및 자기조절(조현, 2012)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습식수채화를 성인 대상의 심리치료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어떠한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본 연구자는 습식수채화를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집단(예. 우울한 중년 여성, 한부모 여성 등)에 적용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본 연구를 통해 습식수채화를 부부프로그램에 적용하여봄으로써 그 치료적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목회자 부부관계의 특성과 부부상담 프로그램

목회자 가정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Cameron과 Balswick은 목회자의 가정생활을 ‘우리집 안에서의 생활’에 비유하면서 목회자 가정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미순, 2014). 즉, 목회자 가족원은 교인들의 관찰과 비난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며, 가정이 물리적으로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환경인 경우 가정에서 조차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없게 된다(반신환, 2003). 목회자 부부는 목회라는 독특한 직무특성으로 인해 부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목회자 부부관계는 자신의 가정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목회자 아내들은 이

러한 특수한 입장으로 인해 목회자의 동반자 역할과 아내 역할 사이에서의 역할갈등이 있게 되고,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다(반신환, 2003). 또한, 한국교회의 목회자 상당수는 과도한 목회업무와 개인의 내적 성향으로 인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반신환, 2003), 설교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는 가정에서조차 부정적인 자기 노출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런 점이 목회자가 부부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 부부의 관계 증진과 친밀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실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온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Gottman이론(공성숙, 2004; 차경선, 2013; 최미나, 유평수, 2014), Satir의 경험주의 이론(이화자, 최연실, 2003), 의사소통 이론(김순옥, 2001; 모의희, 2002; 정경희, 2008), 가족탄력성 이론(김연수, 2010), 해결중심 이론(박민자, 2009; 소병숙, 정혜정, 2009), 통합적 이론(박은혜, 2015; 최규련, 2009) 등 부부 및 가족치료 이론이 중심이 된 부부프로그램들이 주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교류분석이론(백경미, 최외선, 2011), 현실요법(원복연, 2013), NLP이론(이영순, 2016) 등 개인심리치료 이론이 부부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이론들이 언어적 표현 문화가 덜 발달되어 있는 한국 부부문화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데에는 세심한 문화변용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미술 매체 등을 활용한 부부프로그램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감정의 표현이 편하지 않은 내담자들에게는 매체의 은유적 속성을 통해 편안하

게 마음의 이해와 소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김나영, 2015; 윤지희, 2014; 이경숙, 2011; 홍지현, 2016)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활용된 미술매체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김나영, 2015; 백경미, 최외선, 2011; 이경숙, 2011)와 콜라주방식에 주력하는 경우(윤지희, 2014; 홍지현, 2016)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활용되는 미술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매체로 인한 영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미술 치료적 기법을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습식수채화를 새로운 치료 매체로 활용하여 치료적 효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은 목회자 부부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습식수채화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색채를 통해 부부 각자 내면의 감정들이 표현되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내면이 이해되면서 부부의 소통이 개선되고 친밀감이 증진되는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중년기 목회자 부부로 결혼 10년 이상의 유자녀 부부로 한정하였다. 서울의 위성도시인 A시의 목회자 네트워크를 통해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최종 7쌍을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먼저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녹음과 사진촬영, 비밀보장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남편과 아내 모두 40세~60세로 평균 50세였다. 결혼기간은 13년~30년으로 평균 22년 정도였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과 대졸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내 한명은 고졸이었다. 남편들은 전원 현직 목회자이며 목회경력은 8~20년까지였다. 아내들의 직업은 교사 1명, 상담사 1명 그 외 5명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각 가정당 2~3명이었고 대체로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이었다. 연구자는 이들 7쌍의 부부를 참석가능한 날짜 등을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습식수채화 화판 등을 놓고 작업을 하기에 4~6명(2~3쌍) 정도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3개의 집단 모두에 대해 전화기 녹음과 기록을 하면서 집단이 진행되었으며 7쌍 모두에 대해 사후조사 및 면접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부 2쌍이 참여한 1개의 집단을 중심으로 사례 과정을 기술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절차

1)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의 구성 의도

본 프로그램은 발도르프 습식수채화의 색채론과 시행방법의 전통에 기초하여 습식수채화 작업을 중년기 부부의 부부관계 증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창조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미술작업을 통한 개인 성장이 아니라 부부관계 증진에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 그리고 친밀감의 증진에 모든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각 회기별 소요시간은 120분이다. 모든 회

기의 중심에는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작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였고 작품 활동을 매개로하여 참여자들의 이야기 나눔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2) 회기별 내용과 목표

본 프로그램에서는 슈타이너의 색채의 본질(Steiner, 1921/2000)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회기별 색에 대한 소개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시작되는 방식을 띤다. 슈타이너는 노란색의 본성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향하여 방사하며 항상 어딘가를 향하여 방사하려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혼을 향해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본다. 파랑의 내적 본성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방사하려 하며 경계에서 응축되어 내부를 향해 흘러간다고 본다. 빨강은 노랑과 파랑 두 가지 색에 대한 일종의 조정자로 본다. 빨강은 끝없이 평면으로 머물며, 방사하지도 외피를 만들지도 응축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존재만을 주장한다(Steiner, 1921/2000).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색의 본질적 성격에 기초하여 파랑은 회피형 외로움, 노랑은 불안형 외로움으로, 빨강은 조정자로 소개된다.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과 목표는 <표 2>와 같다.

1회기에서는 습식수채화에 작업에 대한 안내와 색채와 감정을 연결시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로가 안전하게 마음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는 파랑으로 유발된 감정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인식해 봄으로써 배우자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회기에 '노랑과 파랑의 만남'을 통해 이 둘 간의 역동을 부부

표 2. 습식수채화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제목	회기목표	활동내용
1회기	파랑 이야기	• 라포형성 • 집단과 습식수채화작업에 대한 안내 • 파랑이야기를 통해 마음 열기	• 습식수채화 오리엔테이션 • 별칭짓기, 집단규칙안내 • 파랑이의 이야기 들려주기 • 물먹은 종이에 파랑이를 표현하고 느낀 점 나누기 • 배우자의 그림에 나무 그려 넣고 나무의 의미를 나누기 • 그림에 제목 붙여주기
2회기	파랑의 두번째 이야기	• 파랑과 외로움의 감정을 연결시켜 표현하고 인식하기 • 외로움과 관련된 배우자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 지난 회기 그림을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 파랑의 두 번째 이야기 들려주기 • 물먹은 종이에 파랑이를 표현하고 느낀점 나누기 • 배우자의 그림을 보고 느낀점 나누기 • 배우자의 그림에 제목을 붙여주고 느낀 점 나누기
3회기	노랑이야기와 파랑과 노랑의 만남	• 노랑과 불안한 외로움의 감정을 연결시켜 자신과 배우자 이해하기 • 노랑(불안형 외로움)과 파랑(회피형 외로움)이 부부역동에 어떻게 표현 되는지 통찰하기	• 지난 회기 그림을 보며 느낌 나누기 • 노랑의 이야기 들려주기 • 물먹은 종이에 노랑이를 표현하고 느낀점 나누기 • 노랑(불안형 외로움)과 파랑(회피형 외로움)을 부부간에 역할 정하여 그림판에서 역할극하기
4회기	초록과 주황이야기	• 초록, 주황과 연결된 자신이 느끼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표현 하고 서로의 행동과 감정을 수용하기	• 지난 회기 그림을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 초록의 남성성 이야기(달)들려주기 • 물먹은 종이에 초록을 표현하고 느낀 점을 나누기 • 주황의 여성성 이야기(빛) 들려주기 • 제목 붙여주기
5회기	빨강 이야기와 빨강과 다른 색의 만남	• 중심 존재로서의 빨강을 통해 자신 과 배우자를 이해하기 • 빨강이 노랑, 파랑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스파크의 경험(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하며 수용하기	• 지난회기 그림을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 빨강의 중심존재로서의 이야기 들려주기 • 물먹은 종이에 빨강을 표현하고 느낀 점을 나누기 • 노랑, 파랑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빨강과 만나게 해주기 • 배우자, 참여자 그림 중 마음에 드는 곳에 서 보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기 • 제목 붙여주기
6회기	함께 그리는 계절	•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부부의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여 그림으로써 부부의 긍정적 친밀감 증진	• 지난 회기 그림을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 부부가 함께 행복했던 순간(계절)을 떠올려 보기 • 나무판을 붙여서 부부가 함께 대화없이 그림으로만 표현해 보기 (부부가 한 종이에 한 계절을 표현하기) • 부부가 함께 그림에 제목 붙여주기
7회기	나의 의미	• 색채를 통하여 배우자를 표현해 봄으로써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를 인식, 수용하기	• 지난 회기 그림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 회기별 만났던 노랑, 파랑, 빨강의 경험에 기초하여 색들을 활용해 배우자를 표현해주기 • 침묵해보기, 다시한번 배우자에 대한 느낌과 색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 표현된 그림에 대해 느낀점 나눠보기 • 제목 붙여주기
8회기	내가 원하는 삶	• 작품을 배열하여 자신의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긍정적인 미래 지향성을 가지기	• 전체 그림들을 한곳에 모아보기 • 그림을 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 후 이야기 발표하기 • 배우자와 느낀점 나눠보기 •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 하나를 골라주고 제목 붙여주기

관계 패턴에 대입시켜 탐색해보도록 하여 부부역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통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회기는 혼색을 통해 초록과 주황을 남성성과 여성성에 연결시켜 배우자간의 의미를 탐색하고 교류를 통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의 의미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관련된 원가족 및 삶의 역사가 반영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회기에는 노랑, 파랑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빨강으로 작업을 해본다. 그 후 빨강과 파랑, 노랑 중 한 가지 색이 만나도록 하면서 경험되는 새로운 감정들을 배우자와 나뉘보도록 하였다. 6회기는 이상의 경험했던 색을 활용하여 부부가 함께 ‘행복했던 그 계절’을 표현해 보게 하여 부부의 긍정적 친밀감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7회기는 이전 회기에서 경험한 색을 가지고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고 느낀 점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회기에는 지금까지의 작품을 자기 나름으로 배열하여 배열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선호하는 이야기’(최민수, 김정희, 2014)를 만들어보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 및 타인의 지지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에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배우자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작업들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었는데, 부부 각자의 내면탐색을 위해 ‘파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열기’ ‘배우자가 표현한 파랑이 안에 나무 그려 넣기’(1회기), ‘부부의 상호이해를 위해 노랑과 파랑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연결시켜 감정 표현하고 인식하기’(3회기), ‘노랑과 파랑이가 되어 하는 역할극’(3회기), 부부의 상호교류와 친밀감 증진으로 ‘배우자와 함께 행복

했던 계절을 표현해보기’(6회기), ‘색으로 배우자를 표현해보기’(7회기), ‘배우자에게 그림을 뽑아서 선물하기’(8회기)와 같은 활동들이 그러하였고, 전체 회기를 통해 ‘배우자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상대와 나누기’, ‘배우자의 그림에 이름 붙여주기’와 같은 순서를 통해 부부간 심도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3) 매 회기의 진행과정

습식수채화 활동이 내면과 관계에서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 회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 지난 회기에 그린 그림 보며 다시 느낌 나누기
회기 시작 시 물이 마른 그림을 통해 또 다른 감정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때와 다른 감정을 통해 지금의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② 습식수채화 활동 도구 경험

습식수채화 도구경험은 수행공포가 감소하고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구 경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 붓의 터치 경험: 붓은 자신의 손등과 배우자의 손등을 지나가며 느껴지는 촉감이 감성을 깨우고 배우자와의 간접적인 접촉을 경험하도록 한다.
- 나무판 적시기: 다음으로 마른 나무판에 붓으로 천천히 물 칠을 하도록 한다. 물 칠을 할 때 ‘천천히’와 ‘침묵하기’를 권하였는데, 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곳’과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종이 준비: 나무판이 촉촉하게 될 때, 10분 전

에 미리 물속에 담궜둔 종이(머메이드지)를 꺼내어 젖은 나무판 위에 올려놓는다.

③ 스토리텔링

수채화작업을 시작하기 전 진행자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색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색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시켜 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색의 이야기는 슈타이너의 색채론(김소라, 박연선, 2007; Steiner, 1921/2000)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연구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은 1회기에 들려준 파랑이 이야기 예시이다. 파랑은 슈타이너의 색채론에서는 ‘내부로 응축되는 성질’로 규정되어 있어 ‘방사하는 성질’을 가진 노랑과 대비된다.

진행자 : 파랑이 있습니다. 파랑이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 인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는 없어 나는 정말 멋져’ 라고 아는 파랑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아름다운 파랑이는 혼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즐겨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파랑이는 괴롭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랑이의 선택은 도망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파랑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④ 작업

작업은 색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시작된다. 이 때

‘천천히’와 ‘침묵’을 강조한다.

⑤ 나눔

작업단계가 끝나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습식수채화 작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⑥ 그림에 이름 붙여주기

자기작품 혹은 배우자 작품에 이름을 붙여주게 한다. 무의식적 상상력이 표현된 창작품에 이름붙이기 행위는 의식의 영역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된다.

2) 프로그램 시행 절차

프로그램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주저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7쌍의 부부를 각 부부들의 스케줄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3그룹(3쌍, 2쌍, 2쌍)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8회기씩 일주일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3그룹으로 나눔 이유는 집단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수채화작업에 필요한 공간 크기와 부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프로그램은 A시의 K교회 교육관에서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의 전 과정은 녹음되어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기 중 내담자들의 행동관찰 및 중요한 사항 등은 회기기록지에 메모되었다. 매회기 직후 회기 기록지를 정리하였고 수채화작업 중간과 종료 시에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 자료로 남겼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닥(google doc.)을 활용한 사후질문지 응답을 받았고 각 부부 당 30분 정도씩 사후면접도 진행되었다. 면접에는 부부

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3) 사후질문지 및 사후면접 질문

사후질문지에는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그 이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프로그램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후면접에서는 프로그램 중의 경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부부관계에서의 변화 등이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4) 자료 분석

사례를 통한 프로그램의 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회기 축어록을 중심으로 회기기록 및 작품사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사후질문지는 별도의 분석 없이 기술통계와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사후면접은 축어록을 내용분석하였다. 내용분석과정에는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연구자 2인(그 중 1인은 주연구자)과 석사과정생인 공동연구자(프로그램 진행자)가 함께 참여하여 개방코딩부터 범주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얻었다.

IV. 연구결과

1. 사례를 통해 본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과정

이 절에서는 습식수채화를 활용한 부부프로그램의 회기별 변화 과정을 참여자 A와 B부부가 참여한 집단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A남편(42

세)은 작은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아내(41세)는 전업주부이며, 15세, 10세, 7세 삼형제를 두고 있다. 남편은 적극적인 성격이나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어서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내는 적극적이며 남편과 다르게 자신의 요구를 즉시 남편에게 이야기 한다. 남편의 목회에서 성도가 거의 없고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에 만성적 갈등요인이며 이로 인해 대화 없는 힘겨운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B남편(55세)도 담임 목회자이며 아내(53세)는 전업주부이고, 22세, 21세, 20세 3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목회를 하기 전 직업 군인으로 공군에서 근무를 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맑고 사려가 깊으며 작은 일이라도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아내는 갱년기 증상과 약간의 무력감과 우울증이 있으며 평소 상담 공부와 미술 치료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1) 1~3회기: 파랑, 노랑과의 만남

1회기는 프로그램 소개와 집단원 간의 친밀감 형성, 습식수채화 작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파랑색으로 유발되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 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도입에서 활용한 별칭짓기, 집단 규칙 정하기, 습식수채화도구에 대한 경험, 물 칠하기 등은 집단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수채화도구 경험시 참여자들은 납작 붓을 자신의 손등위에 천천히 지나가 보게 한 후 이어서 배우자의 손등을 천천히 부드럽게 지나가 보도록 하였다. 이는 도구에 친숙함을 주는 동시에 배우자와의 간접적인 터치를 경험하도록 하여 부부의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로 삽입된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간질간질’하다, ‘민망해서 눈을 못 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후 나무판에 천천히 물을 먹이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작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상담사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작업 중 ‘천천히’와 ‘침묵하기’를 강조하였다. 붓 터치를 경험하는 것과 화판에 물 먹이기 루틴은 매회기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다. 나무판이 촉촉해지면 10분전에 물에 담가둔 종이(머메이드지)를 꺼내어 화판에 올린다.

이어 참가자들의 몰입된 상상을 유발하기 위해 ‘파랑이 이야기’가 상담사에 의해 들려지고 이어서 파랑색을 활용한 습식수채화작업은 <그림 1>과 같다. 첫 수채화 작업시 A남편은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돌았으며 A아내는 그런 남편을 재촉하였다. B남편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아내의 시작과 끝에 자기 속도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시도해보는 습식수채화 작업에 참가자들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처음으로 감정이 건드려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후 배우자의 그림이 표현하는 것을 읽어주는 작업을 했는데, B남편의 경우는 그 활동을 통



그림 1. 참여자들의 습식수채화 활동사진(1회기)

해 ‘자신의 마음을 배우자가 알아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고 표정이 밝게 변화했지만, A부부와 B아내의 경우는 별다른 감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배우자의 파랑 안에 ‘자신만의 나무’를 그려주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 B남편의 경우는 자신이 ‘배우자에게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며 그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나머지 참여자들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회기부터는 도입부에 이전 회기의 작품을 보며 느낌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2회기의 목표는 파랑색을 통해 회피형의 외로움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채화작업 후 이야기 나눔을 통해 막혀있던 A부부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A남편: 아, 저는 그냥 귀찮아요. 현재 자유롭지가 않아요. 누군가 오면 무언가 해줘야 하고,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 편하고...(후략)

A아내: (전략) 저는 상상력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딱 그건 거야, 아~ 이 파랑이를 어떻게 좀... 저 갈망하는 파랑이를 여기로 데리고 오고 싶은거죠. 이런 느낌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이 갈망을 좀 풀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A남편: (전략) 아~나도 이 쉬는 시간에 혼자 훌쩍 떠나버릴까? 그런데 갈 수가 없네..

A아내: 왠지 슬프다. 뭐 그런... 왠지 남편이 파랑이랑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요즘 남편이 갱년기라서 그런 것 같았는데... 잘 표현도 하지 않고 말도 잘 안

하고..당신 힘들고 외로웠구나.

A남편: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잠시 보이고 침묵함)

B부부의 경우는 적극적 표현을 하는 남편에 비해 여전히 닫혀있는 듯한 아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3회기의 도입부에서 이전 회기의 그림을 보면서 느낌을 나누는 시간에 B아내는 지난 회기 후에 남편과 새롭게 시작된 소통을 이렇게 말하였다.

B아내: 남편과 오랜만에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파랑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 여보 파랑이가 이젠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대화가 신선하기도 하고 왠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

B남편: 저의 아내가 소녀 같죠. 요즘 아내가 소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후략).

3회기에는 '불안형 추적자'로 의인화시킨 노랑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상담자에 의해 주어지고 노랑을 활용한 수채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전 회기까지 작업에 몰입하지 못하던 A남편은 이번 회기부터 몰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작업 후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큰 외로움'이 표현된 노랑과 닮았다고 말하였다. 이 회기에 B남편은 옆 사람에게 물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아이처럼 붓을 털거나, 그림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며 귀를 그림에 쫓고 세우기도 하는 등 이전의 모범생다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색채와 내면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어 배우자 간에 노랑과 파랑의 역할극을 하였는데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통해 노랑과 파랑 역할을 각각 선택하였다. 노랑의 역할은 누군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역할이고 파랑은 누군가 다가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는 역할인데 이 역할극을 부부가 함께 그림판을 붙여놓고 색이 묻은 그림붓을 가지고서 진행하였다. 즉 붓으로 하는 역할극인 셈이다. 역할극 후의 소감에서 A부부의 변화하는 역동이 느껴졌다.

A아내: 저는 파랑이 인데요. 예전 같으면 저렇게 노랑이가 치고 들어오면 막 달려들어서 공격해야 하는데, 와~나 많이 죽었다. 나, 많이 변했다. 그리고 남편도 많이 변했 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인 초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남편: 우선 '내 땅을 차지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칠하고, 그런데 파랑이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내 땅을 그렸죠. 그리고 따라다녔다 보다는 음, 같이 있고 싶었죠.

아내의 닫힌 모습을 살피오던 B남편은 이 역할극을 통해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B남편: (아내의 붓이 자신의 그림판 안으로 들어오자) 아유~ 귀여워. 내 영역에 말도 없이 확 들어왔어요. (아내에게) 더 들

어와줘요~ (집단원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파랑이가 와서 건드려 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제 성향하고 다른데 파랑이가 와서 건드려 주니까 살짝 도망가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뭉게구름(아내의 별칭)이 참 귀엽다는, 사랑스럽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B아내: (전략) ‘노랑아 너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남편을 잘되게 하고 싶고 가족을 세우고 싶은데 잘 안돼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울컥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2) 4~5회기: 초록, 주황, 빨강과의 만남

4회기 전반부는 초록색을 남성의 이미지로 비유한 스토리텔링이 주어진 후 파랑과 노랑을 혼합한 초록으로 수채화작업을 하였다. 작업 후 A부부는 목회에서 고전을 하는 남편의 어려운 마음을 아내가 공감하고 보듬으면서 남편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수용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남편: 교회개척하고 10년이 되었지만 (성도가 별로 없어서) 참 저는 힘든데...,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참...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초록을 만들면서 강하게 칠해 봤어요. 웬지 강해지고 힘이 있어 보이기를 원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A아내: (전략) 초록은 참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보면은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죠(후략).

A남편: 저번 주에 힘들었던 마음이 정리가 된

듯 하다고 해야 하나, 강하지만 여린 것을 인정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상담사는 빛(주황)을 여성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시킨 수채화 작업을 이끌었다. 작업 후의 이야기 나눔에서 아내들은 수채화에서 자신들의 여성성을 투사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남편들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대화 중에 아내들은 자신의 욕구와 남편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5회기에는 빨강색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작업 후 빨강이라는 강렬한 색채를 통해 표현되는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을 드러내었다.

B아내: 나는 나야. 혼돈스러워도 힘들어도 ‘나는 나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강을 하는 것 자체가, 표현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음...좋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있지 않아도 나는 나니까 음...네, 좋아요.

이후 참여자들은 이전에 경험한 색인 노랑과 파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빨강과 만남을 갖게 해주는 수채화작업을 하였다. ‘이 만남이 일어날 때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스토리텔링이 제시되면서 참여자들의 상상을 자극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노랑을 선택하였고, 빨강 위로 노랑을 채색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작업 후에는 상대 배우자, 또는 다른 누군가의 그림 앞에 앉아 오늘 상대의 컨디션, 생각, 기분, 감정을 읽어주는 활동을 해보았다. B남편과 A남편이, 그리고 A아

내와 B 아내가 서로 자리를 바꿔 상대의 그림 앞에 서서 상대의 생각, 기분, 감정 등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다. B남편이 그림을 통해 A남편의 연약함을 읽어 주는 과정에서 그 연약함이 A남편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B남편도 가지고 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A 남편의 연약함에 대해 A아내가 공감하는 과정이 이어져서 집단원 간에 지지와 유대감이 경험되었다.

3) 6~7회기: 색을 활용한 확장적 수채화 작업

6회기에는 부부가 함께 보낸 가장 행복했고 빛났던 순간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수채화 작업을 하였다. <그림 2>에서 부부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한 뒤 부부가 화판을 함께 붙여서 한 개의 그림을 대화하지 않고 그리도록 하였다. 활동 후 부부가 작품을 두고 대화하도록 했다. A아내는 남편의 외로움을 이제 알겠다는 마음을 남편에게 흘려보냈고 남편 또한 아내가 보낸 감정을 받고 자신의 감정을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B 부부는 이 활동을 통해 30년 전의 연애 감정들이 소환되고 있었다.



그림 2. 참여자들의 습식수채화 활동사진(6회기)

7회기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색을 통하여 배우자를 표현해보고, 이것을 부부간에 소통해봄으로써 상대배우자가 가진 자신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하였다. A아내는 남편 안에서 꽃을 보고 있다고 남편의 잠재력을 알아주고 있었고 남편은 ‘철벽’ 같던 아내가 요즘은 문이 열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반응하여 아내는 ‘확 더 들어오라’고 적극적인 초청을 하고 있었다. B 부부의 경우 서로의 현재 모습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수채화를 통해 간접 의사소통 되고 있었다.

A아내: (전략) 이 사람 안에 자기만의 꽃이 있는데 올라와 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색의 꽃들이 있는데 활짝 피어 올라 오길 기다려 보는거예요. (중략)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화려하고 예쁘다 이렇게 정말 말해 주고 싶었어요.

A남편: 이 사람은 정말 다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철벽을 했던 말이지요. (중략) 요즘 들어, 최근이죠,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해요. 예전에는 절대 못 들어갔는데, 요즘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요.

A아내: 저의 남편이 겁이 많아요. 확 들어와도 좋은데...우린 반대예요. 내가 남자 같고 저 사람이 여자 같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 바뀐 듯해요. 여보, 확 더 들어와도 돼~

4) 8회기: 내가 선호하는 내 인생 이야기

8회기에는 마무리 회기로서 지금까지 그린 작품들로 자신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표현해보았다.

7회기 동안 만든 작품들을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후 자신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하였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여 일인 당 15분~20분 정도의 이야기하기 시간을 주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원가족의 역사, 가치관, 마음의 유대 등에 대한 적극적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자기 삶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었고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구성해내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에 대해 ‘반영집단’의 역할을 한 배우자 및 집단원들의 지지와 격려는 화자의 관점을 승인하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배우자의 그림 중 하나를 뽑아서 액자에 넣은 후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A와 B 두 쌍의 부부가 참여한 집단의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과정과 내담자의 변화를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난 회기의 작품을 보고 느낌 이야기하기, 붓으로 손등 지나가게 하기, 화판에 물 먹이기 등 매 회기 반복되는 루틴과 침묵 및 잔잔한 배경음악의 사용 등이 참가자들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색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참가자들이 수채화작업을 통해 자신 혹은 타인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 등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주어진 이야기의 한계 안에서 상상하게 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셋째, 목회자라는 역할로 인해 쉽사리 꺼내놓지 못하던 자신의 수치, 열등감, 불안, 거절당한 느낌 등이 습식수채화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편안하게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었고 이러한 내면 작업의 효과는 초기에 참여에 가장 소극적이

었던 A남편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3의 응답 참고). 다섯째, 작품에 대해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하기 작업은 표현된 자신 혹은 배우자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고 수용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야기 만들기라는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휘발성 강한 순간적 느낌들이 현재의 삶으로 통합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참여자 응답 분석 결과

1)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사후설문지 분석 결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설문지를 참여자 각 개인에게 구글닥(google-doc.) 설문지로 만들어 송부하여 조사된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습식수채화 집단상담을 하면서 ‘내면을 탐색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면 ‘내면을 깊이 탐색하기에는 회가가 짧았다’는 아쉬움과 ‘다양한 주제와 색, 감정 주제로 좀 더 체계화가 되면 자기 내적 감정 표현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등의 아쉬움과 추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참여자들의 평가는 <표 3>과 같다.

2)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사후면접 분석 결과

<표 4>는 습식수채화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이 경험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사후면접 결과를 내용 분석한 결과이다. 각 범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 이해 증진

본 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

표 3.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사후설문지 분석 결과

		만족도 4.6점(5점 만점)						
프로그램 만족도/ 그 점수를 준 이유	• 재밌다. 신선하다. 아내(상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즐겁게 참여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심리상태를 보는 것이 좋았다. •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았다. •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음 탐색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처음 접해본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다. • 내가 가진 정서의 결을 알고 바라보게 되었으며 응어리 정서가 풀어지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남편과 있던 내면 깊숙한 사연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를 달래주고 이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 처음 해보는 습식 상담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 습식에서 상대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내 감정 상대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흥미로웠다. 자유로운 표현이 좋았다. • 물감으로 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자유로운 경험이었다.							
	프로그램 후 변화 (모두 선택)	① 전보다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 (13명) ② 전보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12명) ③ 전보다 배우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2명) ④ 배우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부드러워졌다 (10명) ⑤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9명)						
	사전 및 사후 상태에 대한 주관적 점수 (1~10)	A	대상	성별	자신에 대한 이해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부 대화의 질	부부 친밀감
				남편	4 → 8	4 → 7	4 → 8	4 → 8
		B		아내	5 → 7	5 → 8	5 → 7	5 → 7
				남편	4 → 7	4 → 7	4 → 4	4 → 7
		C		아내	5 → 7	6 → 8	6 → 8	4 → 7
				남편	3 → 7	6 → 8	6 → 9	6 → 9
		D		아내	6 → 9	5 → 9	5 → 9	5 → 9
			남편	8 → 9	8 → 9	8 → 8	9 → 9	
E			아내	7 → 8	8 → 9	7 → 9	7 → 8	
			남편	6 → 8	6 → 9	7 → 8	7 → 8	
F			아내	5 → 8	6 → 8	6 → 8	6 → 8	
			남편	3 → 7	5 → 8	4 → 6	3 → 8	
G			아내	7 → 9	6 → 9	6 → 9	7 → 9	
			남편	5 → 7	4 → 6	3 → 7	4 → 7	
		아내	4 → 7	4 → 7	3 → 7	3 → 8		

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반응을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은 일상에서 잊고

살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억압해

표 4.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사후면접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세부내용
자기 이해 증진	일상에서 잊고 살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내 생각이 명료화됨, 무뎠던 내 삶을 되돌아 봄, 내면의 감정을 분리시켜봄, 나만 알던 나를 펼쳐 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여다봄, 내 감정을 알게됨
	내면에 감춰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을 보게됨, 가면을 벗은 자신을 보게됨, 억압된 내면의 자신을 보게됨, 많은 것을 덮어두었음을 알게됨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수용하게 됨	외로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님을 이해함, 어두운 것도 미완성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함,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의미를 가짐
	내 안의 좋은 감정을 발견하게 됨	원하는대로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같은 충동을 느낌, 내 안의 좋은 감정 발견하고 행복했음
배우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됨	배우자의 몰랐던 부분 알게됨, 남편의 내면이 그림을 통해 나타남, 남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음, 남편의 경직된 모습과 다른 풍부한 감수성을 보았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됨	배우자와의 상호보완성을 이해함, 배우자의 나와 다른 부분 이해함, 아내와의 차이를 알게되고 왜 관계가 힘들었는지 알게됨, 다르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됨
	배우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함	아내가 보이기 시작함, 아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됨, 아내의 감정을 느끼게 됨, 남편을 알게됨
	배우자의 함몰이 보이고 이해됨	남편이 안쓰러웠음, 남편의 외로움과 함몰을 이해하게 됨, 아내의 외로움이 이해됨
	부부가 서로의 내면을 보게 되었음	상대를 서로 같이 볼 수 있었음, 서로를 표현하고 알게된 간접적 대화가 됨, 싸우지 않고 서로를 보여줌
	배우자와의 닮은점을 발견하게 됨	그림을 통해 배우자의 꿈을 듣고 공감함, 그림을 보면서 서로 닮았다는 것을 알게됨
부부대화의 질적 향상	대화가 많아짐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음, 배우자의 터치 하나로도 이야기거리가 됨, 부부만의 이야기 시간 가지게 됨, 대화를 하게 됨
	기존의 대화방식 성찰함	대화에 연습이 필요함을 알게됨,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됨, 아내와의 다름에 맞추고 품어야지 생각함
	심도있는 부부대화 가능해짐	건조하던 대화가 자유로워지고 섬세해짐, 대화의 깊이가 생김, 그림을 통해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해짐
	부부간 질문하는 새로운 경험	프로그램 중 배우자에게 질문하는 경험 새로움, 배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소중했음
부부 친밀감 증진	부부간 애정적 교류 증가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시간, 신혼 때보다 더한 느낌의 공유, 남편이 선택해준 그림에서 선물받은 느낌, 하나가 되는 느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려는 느낌
	부부만의 행복한 시간 가짐	특별한 부부의 시간이었음, 배우자가 깊은 마음을 나눈 시간, 배우자와 보낸 편안한 시간, 남편의 인정을 받고 행복한 시간

놓은 자기 내면과 접촉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인식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좋고 나쁜 감정을 구분하고, 나쁜 감정은 억압하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수용하고 비판단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변화도 나타났다. 내 안의 좋은 감정을 발견하여 기뻐했다는 표현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젖은 종이와 물감

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강한 충동성을 느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감정을 발견하고 행복했다.’ 라는 응답이었다.

(2) 배우자에 대한 이해 증진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습식수채화를 통해 평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배우자 내면의 솔직한 면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활하고 말하고 하는 것과 그림과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올라오고 표현하는데 정말 이것을 하면서 저의 남편의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좋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풀어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D0아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습식수채화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드러난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능력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배우자의 습식수채화 작업 과정과 결과물 등을 통해 생활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배우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우자가 힘들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의 힘들음이 보이고 그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서로 마음을 들여다 볼 시간이 우리는 전혀 없

었거든요. 제 마음 이야기를 남편한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음 그냥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올면서 극복하면서 살았지 이제 여기서 남편한테 내 마음을 나타냈던 것 같았고 그리고 남편도 마음을 보여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G0아내).

(3) 부부 대화의 질적 향상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부부의 내면이 교류되는 대화 기회로 인해 프로그램 이후의 대화 또한 달라질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습식을 해보니까 그냥 꺼내놓게 되고 신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상대가 듣는 것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둘 만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B남편)

“내가 이젠 뭐 징징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멈춰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같이 기존의 대화방식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경우도 나타났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부부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험도 신선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4)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애정적 교류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하는 도중 배우자와 애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표현해주는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자신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시간이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기회로 보였다’, ‘신혼 때보다 더한 느낌의 공유가 있었다’ ‘둘이 하는 작업을 할 때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부부만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응답도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부부의 교류 경험은 집단프로그램 포맷을 벗어나 부부 단독의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습식수채화를 활용한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과 효과성을 참여자 경험을 통해 탐색해봄으로써 습식수채화 기법의 부부상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습식수채화 기법이 부부의 내면 탐색과 상호이해, 상호교류, 친밀감 형성 등에 효과적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습식수채화는 부부간 상호이해와 내면의 교류, 친밀감 증진을 촉진하는 좋은 상담매체로 평가된다. 습식수채화는 참여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발하며 내면작업과 자기노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림의 형태가 점점 구체화 되는 방식은 참여자들이 내면의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자기노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배우자와의 상호교류가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편안하

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습식수채화를 활용한 부부 프로그램은 특히 내면의 억압이 심하고 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부부들의 상호교류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 예상된다. 본 프로그램은 습식수채화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범에 의한 속박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 수 있는 목회자 부부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았는데, 사례에 제시된 A남편의 경우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례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집단의 참가자들 중에는 수년간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가 냉담했던 부부의 관계가 해동되는 극적인 변화도 나타났는데, 이것이 습식수채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효과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이야기의 치료적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습식수채화에서 활용하는 통상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을 넘어서서 주체적인 이야기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치료의 방법(고미영, 2003)을 활용하였는데 이것이 참여자들의 긍정적 정체성 확립과 미래 삶에 대한 지향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호하는 이야기 만들기의 기법은 다만 8회기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매회기마다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배우자 및 집단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 그림에 제목을 붙여주도록 안내되었는데, 이 제목 붙여주는 표현된 자신의 내면, 혹은 배우자의 내면에 대한 ‘선호하는 이야기’(최민수, 김정희, 2014)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이 자신의 삶을 ‘목회의 실패’와 같은 ‘지배적 이야기’

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만들어나가는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습식수채화 작업을 활용하여 부부간 상징적인 상호작용 활동이 일어나도록 활동을 삽입하였는데, 이 활동이 부부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붓이 배우자의 손등을 지나가 보는 경험, 배우자의 그림 위에 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색을 머금은 붓으로 화판 위에서 역할극을 해보는 것, 화판을 붙여서 같이 하는 수채화 작업 등의 활동은 습식수채화라는 매체이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교류는 붓과 색,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부들은 그런 교류를 마치 실제 서로 터치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이 받아들였다. 화판 위에 쏟아 놓고 투명한 자신의 내면을 배우자의 붓이 덧칠을 하면 자신이 터치당한다고 느꼈다. 인간은 언어를 포함한 상호 간에 이해되는 상징들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인데, 본 연구에서는 수채화를 둘러싼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부부관계에서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표현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습식수채화를 매체로 하여 인간이 가진 신체적, 감성적인 측면을 깨우면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상징적 상호작용이 부부간의 내면 교류와 긍정적 상호작용,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수채화라는 암묵적 표현매체를 활용한 부부 소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해결 능력을 증진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부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부부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공성숙, 2004; 김순옥, 2001; 모의회, 2002). 이런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부부가 닫힌 마음을 열고 친밀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습식수채화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관계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방법론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장된 사전·사후 검사 없이 간단한 설문이나 면접, 관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과정과 효과를 탐색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각 색채에 대하여 발도르프 습식수채화의 전통을 따라 색을 의인화한 스토리를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상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은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깊숙이 내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색에 감정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색을 경험하고 싶다는 피드백도 있었다. 습식수채화를 상담에 활용할 때 색을 제한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습식수채화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형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이 부분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습식수채화 기법을 치료에 활용

하여 참여자들의 변화과정과 효과를 탐색해본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시도한 습식수채화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방식과 내용이 향후 습식수채화를 상담에 활용하고자 하는 임상가들에게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3). **이야기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 고병인 (2004).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18(3), 154-161.
- 고영규, 허경태 (2004). 주제발표 5 슈타이너 학교. **한국교육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117-145.
- 공성숙 (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2(2), 139-169.
- 김나영 (2015).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의사소통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순 (2014). **목회자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삼숙 (2006). **발도르프 학교 습식수채화를 통한 심상표현지도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2004). 슈타이너학교의 초등회화교육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15(1), 1-31.
- 김소라, 박연선 (2007). 초등학교 1, 2 학년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슈타이너의 습식수채화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색채디자인학연구**, 3(1), 52-63.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애진 (2015). **인성교육함양을 위한 습식수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김용근 (2014). **선생님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 서울: 물병자리.
- 김윤희 (2021).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과정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6~7세 아동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선 (2014).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정신역동적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4(1), 15-40.
- 김지원 (2019). **발도르프학교의 인성함양으로 예술 교육 연구-습식수채화 교육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의회 (2002).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 (2009).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해결중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검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15).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자들의 결혼 만족도 변화에 관한연구. **21세기사회복지학회지**, 12(1), 57-90.
- 박지윤 (2020). **습식수채화 활동이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신환 (2003). **사모상담 기독교상담**. 대전: 한남대학교.

백경미, 최외선 (2011). 부부의사소통 및 친밀감 증진을 위한 교류분석 부부미술치료사례. **한국미술치료연구**, 18(5), 1113-1133.

소병숙, 정혜정 (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31-151.

손지현, 윤지영 (2014). 내용교수지식 (PCK) 에 기반한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수업 설계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12(2), 19-41.

심규선 (2016). **우연적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복연 (2013). **현실요법을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보라 (2007). **발도르프 교육에 기초한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영, 손지현 (2015). 발도르프 습식수채화의 경험을 통한 초등교사 정체성 내러티브 탐구. **예술교육연구**, 13(1), 55-76.

윤지희 (2014). **콜라주 미술치료가 장애아동 부모의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 (2011). **부부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부부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순 (2016).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효과**.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경 (2015). **우연적 효과의 관찰과 연상을 통한**

미술표현 지도방안.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자, 최연실 (2003). 중년기 부부관계증진 (enrichment)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연구 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과 가족치료**, 11(2), 49-76.

이효경 (2009). 이마고 부부치료를 활용한 통합적 미술치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03-125.

정경희 (2008). **부부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사례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 현 (2012). **발도르프 습식수채화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 조절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원종, 이은하 (2019). 중년기 여성의 자기이해를 위한 정신역동적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2), 85-110.

차경선 (2013). **이혼위기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구—Gottman부부치료 기반으로**.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규련 (2009). **부부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부부갈등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적용**.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7(3), 181-200.

최미나, 유평수 (2014).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79-102.

최민수, 김정희 (2014). 이야기치료에서의 비계설정 대화: 레브 비고스키의 비계설정의 이야기 치료적 적용.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79-304.

홍지현 (2016).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Steiner, R. (1921). *Thought-form*. (색채의 본질-영
적체험에 의한 색채의 실체. 양억관 역, 서울:
물병자리, 2000).

A Study on the Couples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Wet Watercolor Techniques: Focused on Participant Pastor Couples' Experience

Heo, Kook-Hwa · Cho, Eun-Suk*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 process and the efficacy of using wet-watercolor method for the pastor couples'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the qualitative data of participants' experience. For this purpose, we recruited 7 couples of middle-aged pastors, divided them into three groups, and implemented 8 sessions of the program for each groups. The group program rooted on the Waldorf wet watercolor tradition and included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couple interaction, focusing on mutual understanding, transaction, and intimacy. The change process and the outcome of the program were depicted through the case examples of two coup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ost-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 concluded that, wet watercolor enabled in-depth inner work, mutual understanding, and intimate transa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were followed by relationship improvement. These results implied the high potential efficacy of using wet watercolor method in couple program.

Key words: Wet watercolor, Pastor, Couples group counseling, Case example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E-mail: grace123@smu.ac.kr

